

‘발암 우려’ 위장약 269품목 판매중지·회수

식약처,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불안정 NDMA 초과 검출 단기복용 위해성 적어... 평가위원회 구성 장기복용자 조사

위장약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 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병·의원, 약국에서 해당 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했다. 또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약품 유통정보를,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에도 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각각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은 7종으로 NDMA가 최대 53.5ppm

검출되는 등 잠정관리 기준 0.16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중지 조치 등이 내려진 269품목은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잔탁 3개 품목의 29개 제품,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 6개 등 총 35개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다. 당시에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아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라니티딘 자체가 성질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NDMA는 주성분이 아닌 불순물로 제품에 불균질하게 혼합돼 있을 가능성이 커 시험 결과에 편차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분해 결합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식약처

는 라니티딘 성분 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약품을 복용 중인 국내 환자는 144만3064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장질환 등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고,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비율이 높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약품에 장기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또 해당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조치대상 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정무수석, 균형발전 박람회서 기조강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오후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경제 투어로 본 지역혁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의 꽃’ 5급 사무관 승진 광주 21.9년·전남 28.2년 걸려

지방직 공무원이 5급 사무관을 달기까지 광주는 21.9년, 전남은 28.2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 소요기간이 시도간에 6년이나 차이가 나 지역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지역 승진 소요기간 6년이나 차이가 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형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 연수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9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평균 26.6년이 걸렸다. 5급 승진까지 광주는 21.9년, 전남 28.2년 걸려 전남이 광주보다 6년이 더 걸린다.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8.8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는 전국 평균 승진 기간보다 2.2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서울시(25.8년), 부산시(22.6년) 등과 비교 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승진하는 데 가장 오랜 기간이 필요한 구간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평균 11년에 달한다.

이에 비해 가장 빨리 승진하는 구간은 9급에서 8급으로 평균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수별, 지역별 승진에 대한 편차를 줄여 지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즐겁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돼지열병 또 확진... “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북부와 인천 강화군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4일 정오에 전국에 발령됐던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48시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늘 정오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국내 발병 시 내려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상황에 따라 한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가 이를 전 내린 이동중지명령의 해제 시점인 26일 정오에 임박해 연장하는 것은 전남 3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이 가운데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장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전국 전체 돼지농장, 출입 차량, 사료농장, 도축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의심농장이 7건으로 보고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일일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상황을 고려해 지역

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 월드컵 평양원정 응원단 파견 北에 타진

정부가 다음달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남측 응원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북한에 타진 중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응원단 파견과 관련된 의사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북측에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타진 경로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응원단 파

견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왔으며,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한 남북간 협의의 채널도 있다. 이 당국자는 ‘응원단 규모 등을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는 질문에 “(북측과) 협의 통해 우리 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타진 절차가 필요하고 북측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말레

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AFC 담당 부서와 만나 평양에서 예정대로 경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들어 평양원정 경기를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북측은 선수단 등 입국 비자를 신청할 인원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응원단 파견은 남북 관계 경제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민간인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정부도 어떻게 접근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전남도, 세계 3대미술시장 홍콩서 ‘수목 교류전’

11월 2일까지 작품 50여점

‘한국-홍콩 수목 교류전’이 지난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계 3대 미술시장 가운데 하나인 홍콩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교류전은 지난해부터 국제수목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전남도가 수목비엔날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전남도내 화가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교류전에서는 ‘수목의 조형(造形), 수목의 확장(擴張)’이라는 주제로 전남과 홍콩 작가 30명의 수목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 중 김천일 작가는 목포 유달산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그 땅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방의 도시 풍경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장안순 작가는 순천만의 생태적 환경을 소재로 다양한 빛의 색감 중에서 인간의 삶에 원초적인 느낌을 주는 빛을 화폭에 담아 전시작품으로 내놓았다.

전남도는 지난 5월 홍콩한국문화원을 방문해 전시 기간 및 교류전에 대한 두 기관의 지원 사항을 협의, 국내외 수목작가 선정 및 도록 제작, 작품 운송, 설치 등 준비를 진행해왔다.

정명섭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한국-홍콩 수목 교류전은 두 나라 작가들 간 우호 증진과 수목의 발전 도모를 위한 행사”라며 “여기에 머물지 않고 2020년전국계수목비엔날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홍콩 수목 교류전은 앞으로 매년 전남과 홍콩에서 번갈아 열릴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

<h1 style="font-size: 2em;">투자</h1> <h2 style="font-size: 1.5em;">7억원, 2명</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급매물 · 경매물건 • 기간 - 2년 이내 • 수익 - 연 24% 이상 가능 • 법적보장.010-3605-5000
--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주택·아파트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12층 67㎡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백
- 광주대학 부근 금호아파트 12층 151㎡ 올리모델링 은행 1억6800 매도 2억5500

투자·매도·교환

- 임대 계림동 아파트 부근 2층 88평 3층 86평 복층 사용 가능 2천에 230
- 강진군 도암면 계림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무안 문탄면 영산강점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요양병원·시설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청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사할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은 8억
- 목포대 인근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전원주택 적합 4300만원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은 1억3천

상가건물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물 613㎡ 안입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청정지역 땅 1372㎡ 건물 269㎡ 펜션·민박 등 적합 신고 7억5천 경관 최고 은행 2억7천 칠불사까지 3km 4억6천
- 서구 차령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곡성군 목시동면 계획관리지역 등 답과 임 234044㎡ 다용도 사용가능 10억6200
- 강진군 성천면 상임지 등 4240㎡ 강진산전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1억5천
- 영광 영산면 비다가 땅 2466㎡ 펜션 2층 은행 동 2억 구매 3억6천
- 양양시 영평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